

新羅 九世紀 石塔의 樣式에 關한 研究

朴 慶 植

一、序 言

新羅下代는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란의 연속인 시기였다. 견고했던 中代의 骨品制度가 와해되고 王權에 도전하는 中央政府의 貴族과 豪族 및 平民에 의한 反亂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속에서도 佛敎는 王室、貴族으로부터 平民에 이르기까지 精神的 支柱였으며 全國에 九山禪門이 開創됨에 따라 佛敎界는 물론 政界도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였고 寺刹의 증가에 따라 많은 수의 佛敎造形物이 建立되었다. 이중 石塔은 三國時代로부터 近年에 이르기까지 各時代、地方에 따라 세부적인 樣式의 變化를 보이며 끊임없이 建立되었다. 이와 같은 諸樣式의 變化는 각각 時代性、地域性을 表出하고 있는데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美術品의 樣式은 저절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필연코 그러한 遺物이 탄생될 時代的 狀況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新羅下代라는 시대적인 境遇기에 탄생된 石造美術은 곧 그 시대를 대변하는 無言의 證人이며 우리는 이러한 美術品의 양식을 통해서 당시의 藝術意識은 물론 時代精神의 變遷과정까지도 엿볼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에서의 石塔의 발생은 대략 서기 六〇〇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② 이로부터의 石塔에 관한 研究는 先學들에 의하여 꾸준히 진행

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時代·樣式別 研究에 집중되었다. ③ 뿐만 아니라 新羅王朝가 消滅되어가는 政治·社會的 과도기인 九C의 石塔에 관한 研究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④

기왕의 미술사 연구성과를 볼 때 九C를 정점으로 한 新羅下代의 藝術과 文化는 쇠퇴기의 양식이라고 일변하고 있으며 특히 石塔에 있어서 는 장식화 내지는 簡略化란 단어로 규정되고 있으나 과연 新羅下代의 文化를 退化라는 단어로 규정지을 수 있는가 하는 데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믿어진다. ⑤

下代의 佛敎美術品은 비록 統一新羅 盛代와 같이 응전하고 기상이 넘 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特性을 가지고 꾸준한 발전을 보인 시기였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佛敎造形物에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石塔에서는 高麗時代에 볼 수 있는 모든 諸樣式이 탄생되고 있을뿐 아니라 外形의 變化와 더불어 塔信仰 자체에도 變化가 오고 있다. 따라서 新羅下代 즉 九C는 문화의 쇠퇴기가 아니라 前·後時代를 연결시켜 주는 藝術意識의 완충시기로서 상호 연결된 造形意識 및 感覺 가운데서 새로운 創造를 위한 첫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八C의 石塔은 慶州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지만 九C에 이르러서는 全國에 걸쳐 전립되고 있다.

이렇듯 전국에 걸친 많은 수의 九C 石塔은 ⑥ 연대편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石塔圖錄에는 建立年代가 九C라고만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九C에 建立된 石塔의 樣式을 검토한 결과 九C 石塔을 前期와 後期로 나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九C에 建立된 石塔中 六九기를 추출하여 이를 前·後期로 兩分하여 각 시기의 樣式을 살펴본 후 中代 石塔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九C 石塔의 樣式的 特徵을 규명하고자 한다.

二、九世紀 石塔의 樣式

(一) 九世紀 前期의 石塔

一世紀를 前·後期로 양분할 때 그 분기점을 대략 五〇년을 前後한 시기로 생각된다. 美術史에서 樣式上의 시기분할은 사실상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만 樣式이 어느 한 시대에 단절되지 않고 기본적인 구조는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石塔에서의 前·後期 분할은 세부적인 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九C前期의 石塔이라 하면 新羅中代의 石塔樣式과 新羅下代라는 時代의 전개와 함께 定立된 新樣式의 교체기 즉, 新·舊樣式이 混在되어 나타나는 時期로 볼 수 있다. 필자가 추출한 九C의 石塔 六九基中前期에 建立된 石塔은 二五기로 생각되는데 前期石塔의 세부양식을 정리해 보면 表一으로 집약된다.

表一에서 보듯이 九C前期의 石塔은 中代石塔의 樣式을 계승하면서 서서히 九C의 독특한 石塔樣式을 形成해 나가는 新樣式의 胎動期로 볼 수 있는바 九C前期의 石塔中 中代石塔의 樣式을 그대로 계승한 대표적인 石塔으로는 光州東五層石塔을 들 수 있다(圖一, 二, 三)。현재 光州市內에는 東·西로 五層石塔이 建立되어 있는바 兩塔은 伽藍配置와 無關한 각기 時代를 달리한 石塔으로 보인다. ⑦

東五層石塔은 二層基壇 위에 五層塔身을 올린 平面方形의 石塔으로 下層基壇은 地臺石과 中石을 붙여 數枚의 石材로 組立하고 基壇面石各面에 隅柱와 撐柱가 二柱씩 模刻되어 있다. 八枚의 板石으로 덮은 甲石上面에는 경사가 있으며 弧形과 角形二단의 庇임이 있어 上層基壇을 받치고 있다. 上層基壇 中石 역시 數枚의 板石으로 組立하고 各面에 隅柱와 撐柱가 각각 二柱씩 模刻되어 있다. 上層基壇 甲石은 四枚로 결구되고 있으며 甲石下面에는 副椽이 있고 上面은 약간 경사가 젖으며 初層塔身을 받치기 위하여 角形二단의 庇임대가 造出되어 있다.

塔身과 屋蓋石도 각각 一石으로 구성되었고 塔身에는 隅柱形이 模刻

되었으며 初層塔身이 다른 層의 塔身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屋蓋石은 추녀 사이가 좁아져서 두꺼워 보이며 추녀 밑은 수평으로 轉角에 이르러 反轉을 보이고 落水面은 平薄하다. 屋蓋받침은 初層이 五단이고 二層부터는 四단으로 되어 있어 前代의 整然했던 角形五단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相輪에는 얇은 副椽이 있는 露盤과 覆鉢이 남아 있으나 모두 파손되어 있으며 그 中心에는 擦柱가 정상에 노출되어 있다.

初層塔身이 높고 屋蓋石의 폭이 단축하며 落水面勾配의 直線化와 더불어 屋蓋받침 層數의 감소는 基壇部가 中代石塔과 동일한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建立年代를 九C初로 추정케 하고 있다. 이 塔은 일찌기 一九五五年에 解體修理한 바가 있어 당시 第四層 屋蓋石 上面에서 舍利裝置가 발견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그곳에서 발견되었다는 銅盒이 國立博物館에 보관되어 있을 뿐 莊嚴具는 전하지 않는다. 당시 수리자의 말을 들으면 수리 당시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그후 一九六一년에 다시 수리가 가져져서 일부 石材가 新造補完되었다. ⑧ 이 塔은 九C에 이르러 新羅故土를 떠나 地方으로 확산된 일련형 石塔으로는 최초의 예로 볼 수 있으며 中代石塔의 세부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九C前期에서도 初半에 建立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양식의 九C前期 石塔으로는 靑松寺址三層石塔, 月光寺址西三層石塔, 安東玉洞三層石塔을 들 수 있는데 靑松寺址三層石塔은 세부수법에 있어 中代의 石塔을 조금도 변화없이 直模했다. ⑨ 月光寺址西三層石塔은 上層基壇 中石받침이 弧形二단으로 변하고 安東玉洞三層石塔에서는 上層 中石받침과 初層塔身받침이 모두 弧形二단으로 변모한 점 이외에는 中代石塔과 양식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볼 수 없다. ⑩(圖四)。이와 같이 中代石塔의 양식과 混在를 보이는 가운데 九C石塔의 樣式의 特徵이 基壇部의 변화로부터 나타나고 있는바 上層基壇의 撐柱가 개로 감소되면서 그 역할에 八部神衆이 彫飾되고 있다.

基壇部 변화의 대표적인 石塔으로는 慶州 南山里西三層石塔을 들 수

<표-1>

9 世紀前期石塔樣式表

石塔名	基壇部					塔身部					相輪部	時代	高	所在地	備考
	下層基壇		上層基壇			塔身石	屋蓋石								
	撐柱	上層中石 받침	撐柱	副椽	初層塔身 받침		屋蓋받침	塔身귀입	낙수 홈						
光州東五層石塔	2	弧角形 2단	2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2층은	1층 5단 2층 이상 4단	角形 2 단	無	露盤, 覆鉢	9C 前期	7.2m	光州市	1955년에 수리, 4층탑신에 사리공	
青松寺址三層石塔	2	角形 2 단	2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5 단	角形 2 단	無	露盤	"	5.5m	慶南 蔚州	1962년 해체 수리, 상층기단에 사리장치	
月光寺址西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2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5 단	角形 2 단	無		"	5.5m	慶南 陝川		
安東玉洞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2	有	弧角形 2 단	양 우 주 扉形	1,2층 5단 3층 4단	角形 2 단	有	露盤, 覆鉢	"	5.8m	慶北 安東	하층기단 각면에 眼象 3구씩	
慶州南山里西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1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5 단	角形 2 단	有	露盤	"	5.5m	慶北 慶州	2층기단에 八部神衆	
山淸泛鶴里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1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각면보살좌상 1구씩	4 단	角形 2 단	有		"	4.8m	慶南 山淸 (現 景福宮)	1947년 再建, 하층기단 보수, 상층기단에 八部神衆	
雲門寺東·西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1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5 단	角形 2 단	無	露盤, 覆鉢, 仰花	"	5.4m	慶北 淸道	상층기단에 八部神衆	
華嚴寺西五層石塔	2	弧角形 2단	1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각면사천왕상 1구씩	5 단	角形 2 단	有	露盤	"	6.4m	全南 求禮	하층기단 각면 3구씩 十二支像 조각, 상층기단에 八部神衆	
大興寺應眞殿前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1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4 단	角形 2 단	有	露盤, 覆鉢, 仰花, 寶輪	"	4.3m	全南 海南	1967년 해체 수리시 상층기단에서 동체여래좌상 1구 발견	
浮石寺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1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5 단	角形 2 단	無	露盤, 覆鉢	"	5.3m	慶北 榮豐	1960년 해체 수리, 3층탑신에 사리공	
斷俗寺址東·西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1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5 단	角形 2 단	無	東塔: 露盤, 覆鉢, 仰花 西塔: 露盤	"	5.3m	慶南 山淸	1967년 해체 수리, 西塔 1층탑신에 사리공	
慶州昌林寺址三層石塔	3	弧角形 2단	1	有	角形 2 단	양 우 주 扉形	5 단	角形 2 단	有		大中九年 (文聖王 17 年·855年)	4.5m	慶北 月城	1976년 복원, 1층탑신에서 석탑기, 사리장치 발견. 상층기단에 八部神衆	

石塔名	基壇部					塔身部				相輪部	時代	高	所在地	備考
	下層基壇		上層基壇			塔身石	屋蓋石							
	撐柱	上層中石 받침	撐柱	副椽	初層塔身 받침		屋蓋받침	塔身괴임	낙수 홈					
洪川物傑里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1	有	弧角形2단	양우주	1,2층 5단 3층 4단	角形2단	無	露盤	9C前期	4m	江原 洪川	
漆谷箕城洞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無	有	角形2단	양우주	5단	角形2단	無	露盤	"	5.2m	慶北 漆谷	2층옥개석 상면에 사리공 상층기단 각면에 眼象 1 구씩
鑿藏寺址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無	有	角形2단	양우주	5단	角形2단	無		"	5m	慶北 慶州	1962년 복원, 초층탑신에 사리공, 상층기단 각면에 眼象 2구씩
述亭里西三層石塔	2	弧角形 2단	無	有	角形2단	양우주	5단	角形2단	無	露盤, 覆鉢	"	4.5m	慶南 昌寧	상층기단 각면에 眼象 2 구씩
慶州南山僧燒谷三層石塔	無	弧角形 2단	無	有	角形2단	초층탑신에 사리공 양우주	4단	角形1단	無		"	3.6m	現 國立 慶 州博物館	1941년 이전. 기단, 초층 탑신에 眼象. 3층은 後補
梵魚寺三層石塔	無	弧角形 2단	無	有	角形1단	양우주	4단	角形2단	無	露盤	835년 추정	4m	釜山 萊 區	하층기단에 眼象 3구씩 상층기단에 眼象 1구씩
慶州南山葺長寺谷三層石塔	無	角形2단	1	有	角形2단	양우주	4단	角形2단	無		9C前期	4.4m	慶北 月城	1922년 再建, 2층탑신에 사리공
慶州南山里東三層石塔	無	無	無	無	角形3단의 별석받침		1,2층 5단 3층 4단	無	無	露盤	"	7m	慶北 慶州	基壇部가 塊石形
慶州西岳里三層石塔	無	無	無	無	1매 판석	초층남면에 方形龕室, 仁王像 1구 씩	1,2층 5단 3층 4단	無	無		"	5.1m	慶北 慶州	基壇部가 塊石形
香城寺址三層石塔	1	弧角形 2단	2	有	無	양우주	5단	角形2단	無	露盤	"	4.3m	江原 束草	1966년 해체수리, 3층 탑 신에 사리공
法光寺址三層石塔	1	弧角形 2단	1	有	3단 받침 별형 석태	양우주	5단	角形2단	有		大和二年 (興德王 3 년·828년)	2층옥 개석까 지 2.6m	慶北 迎日	1층탑신에 사리장치 및 석 탑기. 2층옥개석까지 原材

있다(圖五、六、七)。南山里三層石塔은 二基의 石塔이 東·西로 建立된 雙塔이나 그 양식이 相異한 관계로 분리시켜 우선 西三層石塔만 서술하고자 한다。南山里西三層石塔은 二層基壇 위에 三層塔身을 올린 平面方形의 石塔이다。下層基壇은 地臺石과 面石을 붙여서 四枚로 구성하고 面石에는 兩隅柱와 2 撐柱를 表示하고 있으며 四枚로 구성된 甲石 上面에 弧角形 二단의 받침이 刻出되어 上層基壇을 받치고 있다。上層基壇中石은 各面 一枚씩 四枚로 구성되었으며 兩隅柱와 一撐柱로 兩分하고 各區 안에 八部神衆을 一軀씩 陽刻하였다。二枚石板으로 組立된 甲石 下面에는 副椽이 있고 上面에는 角形 二단의 받침이 刻出되어 初層塔身을 받치고 있다。

塔身과 屋蓋石도 各 一石으로 造成되었는바 塔身石에는 兩隅柱가 模刻되어 있을뿐 다른 莊嚴은 없다。屋蓋石은 비교적 넓게 뻗어 있으며 처마끝에서 직선을 이루다가 끝에 가서 반진되고落水面은 약간 안으로 꺾여 굴곡을 이루고 있다。下面에는 五단받침이 정연하며 落水홈이 있고 上面에는 角形 二단의 塔身받침이 刻出되어 있다。相輪은 副椽이 있는 露盤만이 남아 있다。이 塔은 石材의 結構手法이 中代의 石塔에 비해 略化되고 있지는 않으나 上層基壇의 八部神衆影飾은 가장 큰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中代石塔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新樣式으로 발전해 가는 九C 初期에 建立된^⑩ 代表的인 石塔으로 볼 수 있다。南山里西三層石塔과 같은 양식 계열의 前期石塔으로는 山靑泛鶴里三層石塔, 雲門寺 東·西三層石塔, 華嚴寺四五層石塔, 大興寺應眞殿前三層石塔, 浮石寺三層石塔, 斷俗寺址東, 西三層石塔, 慶州昌林寺址三層石塔, 洪川物傑里三層石塔을 들 수 있다。이러한 石塔은 전체적으로 보아 中代石塔의 양식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基壇部에서의 撐柱가 下層二, 上層一로 中代石塔으로부터 변화하고 있으며 세부에 있어서 양식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되는 세부양식을 살펴보면 山靑泛鶴里三層石塔은 上層基壇에 八部神衆이 陽刻되고 初層塔身 各面에는 菩薩坐象이 一軀씩 陽刻되고 있

으며 屋蓋받침이 各층 四단씩 刻出되어 있다(圖八)。華嚴寺西五層石塔은 下層基壇 各面에 三軀씩 十二支象이, 上層基壇에 八部神衆이 陽刻되어 있으며(圖九) 大興寺應眞殿前三層石塔은 屋蓋받침이 各層 四단씩으로 감소되고 있고 특히 屋蓋石의 추녀가 약간 두꺼운 편으로 추녀 밑은 직선으로 轉角에 이르러 경쾌한 反轉을 보이고 있어 九C 前期石塔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上層基壇 甲石은 一매 板石으로 구성되어 있다(圖一〇)。浮石寺三層石塔, 斷俗寺址東·西三層石塔은 上層基壇 撐柱의 變化 이외에는 中代의 傳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昌林寺址三層石塔은 初層塔身에서 石塔記 및 舍利裝置가 조사되었는바 石塔記에 의하면 大中九年(文聖王 一七年, 八五五)에 文聖王의 發願에 의하여 造成된^⑩ 九C 前期의 樣式을 잘 보여주는 石塔의 하나이다(圖一一)。

이상과 같은 基壇部에서 撐柱數의 변화와 더불어 眼象紋이 基壇에 彫飾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諸石塔은 眼象의 조식에 따른 變化만 보일뿐 塔身部에서는 中代石塔의 樣式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眼象이 彫飾된 九C 前期의 石塔은 漆谷箕城洞三層石塔, 整藏寺址三層石塔, 述亭里西三層石塔, 慶州南山僧燒谷三層石塔, 梵魚寺三層石塔, 安東玉洞三層石塔이 있는데 基壇部로부터 塔身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彫飾되고 있다。

이중 漆谷箕城洞三層石塔은 上層基壇의 撐柱가 없�지고 各面에 眼象 一軀씩을 彫飾하고 있으며(圖一二) 整藏寺址三層石塔과 述亭里西三層石塔(圖一三, 一四)에서는 上層基壇의 撐柱가 없�지고 대신 各面에 眼象이 二軀씩 彫飾되어 있을뿐 다른 樣式의 變化는 보이지 않는다。慶州南山僧燒谷三層石塔은(圖一五, 一六, 一七) 上·下層基壇의 撐柱를 모두 消滅시키고 下層基壇 各面에 細長한 眼象 二軀씩, 上層基壇에는 各面에 길이로 큼직한 眼象을 二軀씩 배치하고 初層塔身에도 兩隅柱를 消滅시키고 各面에 四天王象이 있는 큼직한 眼象 一軀씩을 배치하고 있다。梵魚寺三層石塔은 僧燒谷三層石塔과 마찬가지로 基壇의 撐柱를 省略하고 下層基壇 各面에 眼象 三軀씩, 上層基壇 各面에 眼象 一軀씩을 彫飾하고 있다。이 塔의 建立年代에 대해서는 梵魚寺事蹟記에 「大唐文

宗大和十九年乙卯新羅興德王所創也」라고 기록되어 있는바 大和十九年은 太和九年의 잘못인듯 太和九年은 乙卯年이 되며 新羅興德王 十年(八三五)에 해당한다.¹³⁾ 따라서 九C後期 石塔에서 眼象이 彫飾된 例는 寧國寺三層石塔、到彼岸寺三層石塔에서만 볼 수 있고 梵魚寺三層石塔의 建立이 八三五년경으로 추정됨에 따라 眼象은 九C前期의 表面莊嚴으로 널리 이용되었다고 믿어진다.

이와 같이 九C前期 石塔에 있어 基壇部에는 上二、上一의 撐柱를 표현하고 있으나 後期 石塔의 代表的 特徵인 上・下 基壇에 각각 一 撐柱가 表現된 石塔도 출현하고 있다. 즉 法光寺址三層石塔은(圖 一八、一九、二〇、二二) 현재 寺址 西南隅의 높은 高臺 위에 있는데 原位置는 現位置로 보아 中門과 金堂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다.¹⁴⁾ 현재는 四層의 形態지만 二層屋蓋石까지만 原材이며 나머지 부분은 新材를 補強하여 原形을 손상시키고 있는데 塔頂에 三層屋蓋石으로 보이는 圓形 擦柱孔이 있는 塔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三層石塔으로 생각된다.

이 塔은 基壇部와 初層塔身에서의 변화 이외에는 前期 石塔의 樣式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基壇部에 있어 撐柱가 上下各一柱씩 표시되고 있어 九C後期 石塔의 대표적 基壇形式의 最先例를 보이고 있다. 初層塔身에서의 변화는 종래의 角形二단 받침의 圓을 깨뜨리고 形의 받침을 甲石上面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後期 石塔에 나타나는 別石받침의 先行樣式으로 보이며 또 初層塔身의 高가 二層塔身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는 狀況下에서의 출현으로 주목된다.¹⁵⁾

이 塔은 도굴되었다가 수습된 二개의 塔誌石을 통하여 建塔의 背景이 밝혀졌다. 二개의 塔誌石중 第一石은 長方形 대좌와 頂上에 屋蓋가 있는 石碑形으로 이를 통하여 金均貞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興德王 三年(八二八)에 建立되었으며 文聖王 八年에(八四六)에 이르러 移建되었음을 알 수 있다. 第二石에서는 朝鮮肅宗 二四年(一六八九)과 英祖 二三年(一七四七) 두 차례에 걸쳐 重修되었음이 밝혀졌다.¹⁶⁾ 法光寺址三層石塔은 九C前期의 石塔으로서 後期 石塔의 基壇樣式을 보이고 있으며 初

層塔身과 頂上의 변화와 함께 下代에 이르러 유행한 願塔인점, 그리고 建立年代가 확실한 石塔으로 九C 石塔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法光寺址三層石塔 이외에 基壇 및 塔身받침대에서 변화를 보이는 九C前期의 石塔으로는 香城寺址三層石塔을 들 수 있다(圖 二二)。이 塔은 基壇에 있어 下二、上一개의 撐柱가 模刻되어 있고 甲石에는 初層塔身과 頂上에 없는 점으로 보아 下代 石塔에서의 樣式的 規律性이 흐트러진 일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東海岸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新羅 石塔으로서 그 遺存의 意義가 크다고 보겠다.¹⁶⁾

中代 石塔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基壇部의 일부가 변형된 石塔 이외에 기단 전체에 변형을 가한 石塔으로 慶州南山葺長寺三層石塔을 들 수 있다(圖 二三)。이 塔은 南山 葺長寺谷 정상 가까이에 있는 돌출된 자연암석 상면에 角形 二단의 괴임대를 刻出하고 그 위에 中代 石塔樣式의 上層 基壇、塔身을 올려놓은 形態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下層 基壇이 省略되고 屋蓋받침이 四단인 점을 제외하고는 典型樣式을 따르고 있는데 자연암석을 기단으로 간주한 형식은 慶州南山里東三層石塔과 慶州西岳里三層石塔의 石塊形 基壇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兩塔의 基壇은 각각 八枚의 塊石을 二단으로 쌓은 점으로 보아 자연암석의 형태를 平地에 再現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¹⁷⁾ 이와 같은 형태의 石塔이 高麗時代에 이르러 자주 建立됨은¹⁸⁾ 高麗時代에 이르러 유행하던 風水圖讖說에 있을지 모르며 결국은 山川裨補의 뜻이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된다.¹⁹⁾

이상에서 九C初期에 建立된 二五基의 石塔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바 初期의 石塔은 대체로 中代 石塔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서서히 九C 石塔의 特性을 創出시켜 나가는 시기로 보여진다. 九C前期의 石塔에 나타난 中代樣式으로부터의 변화는

一、下層 基壇에 있어 撐柱는 二柱로 유지되고 있으나 八二八년에 建立된 法光寺址三層石塔에서 一柱로 변하고 있어 九C後期 石塔樣式으로의 이행이 보이고 있다.

二、上層基壇에 있어서는 모두 撐柱의 수가 二柱로 줄어 들고 있어 九C前期 石塔의 基壇部에는 下二、上一의 撐柱가 공식화되고 있다.

三、屋蓋받침은 대체로 定型의 五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四단내지는 各層의 받침수가 統一性을 잃고 있다.

四、基壇 및 初層塔身에 八部神衆、眼象、仁王、門扉形의 彫飾이 나타나고 있는데 眼象은 九C前期에 집중적으로 彫飾되고 있다. 이와 같이 眼象 및 諸象의 彫飾이 石塔에 登場함은 九C 石塔의 工藝化 내지는 寺刹의 裝飾物化에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만 新羅下代라는 時代狀況을 통하여 볼 때 政治、社會的인 必要에 의하여 彫飾되어졌다고 생각된다.

五、慶州南山茸長寺谷三層石塔과 같이 山川裨補思想에 의한 建塔을 들 수 있는데 이는 基壇部全體를 완전히 변형시킨 慶州西岳里、南山里 東三層石塔의 祖型으로 파악되었다.

六、國王 및 王族에 의한 願塔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中代石塔에서 도 그 先例가 있으며 ② 下代石塔의 特性을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七、中代의 石塔은 慶州를 중심으로 密集되어 있었으나 九C前期에 이르러 慶尙道 全域에 建立되어 있으며 일부는 全羅·江原道 地方으로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九C前期는 石塔에 있어 地方으로의 확산이 시작된 시기로 역시 新羅下代의 時代動向에 의한 것으로 믿어진다.

(二) 九世紀 後期の 石塔

九C後期는 前期에 이어 中代 石塔의 양식을 기본으로 변화를 보이며서 九C 石塔의 特徵을 確立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前期에 慶尙道地方을 중심으로 建立되던 石塔이 全國으로 확산되는 시기였으며 基壇部에 있어서는 下一、上一의 撐柱를 갖는 基壇의 定型化와 高麗時代에 유행하던 單層基壇과 佛座形基壇 및 初層塔身과임대에서 別石받침이 출현하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樣式相의 變化를 보이는 九C後期の 石塔은 필자가 표본으로 추출한 九C 石塔 六九基中 四四基에 달하고 있어

數의인 면에서도 前期石塔에 비해 두배로 증가되고 있다.

九C後期에 建立된 四四基의 石塔을 정리하면 다음의 表一과 같다.

表一에서 보듯이 九C後期の 石塔은 基壇部에서는 上下層 基壇部의 撐柱가 각각 一柱씩이며 上層基壇 中石받침이 弧角形의 二단을 유지하고 있고 塔身部에서는 塔身石에 兩隅柱가 模刻되고 塔身과임대가 角形 二단인 점까지는 共通의인 樣式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九C後期の 石塔 역시 中代石塔의 모방에 주력한 듯 보이지만 初層塔身 받침에서의 뚜렷한 변화는 九C後期 石塔의 樣式的 特徵을 명확히 해주 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九C後期の 石塔을 初層塔身받침의 變化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前期의 石塔과 同一하게 角形 二단의 받침을 갖는 石塔의 一羣이 있는데 이러한 類型的 石塔으로는 慶州孝峴里三層石塔、長淵寺址東·西三層石塔、桐華寺東·西三層石塔、靑巖寺修道庵西三層石塔、寧國寺三層石塔、裨林院址三層石塔、寶城金苞寺址三層石塔、襄陽陳田寺址三層石塔을 들 수 있다. 이 類型的 石塔은 基壇部에서 撐柱가 上·下基壇에 각각 一柱씩인 점을 제외하고는 前期의 石塔樣式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上·下一 撐柱를 갖는 기단은 앞에서 살펴본 八二八년에 建立된 法光寺址三層石塔에서 발생되어 後期石塔의 典型적인 基壇樣式으로 公式化되고 있어 이 유형의 諸石塔은 期·後期の 瓦礫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前·後期樣式的 混在는 예술에 있어 새로운 양식은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前代의 樣式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宗教 내지는 社會的 要求、作家의 意識 및 技藝에 의해서 새로운 類型이 탄생되는 것으로 又玄先生은 이에 대해 마치 父의 生命이 方終한 後에 子의 新生命이 出生하여 直線的 承繼를 이룸이 아니요 父의 存命中에 子의 新生命은 生産되고 또 그 속에서 孫의 新生命이 나와 層位的으로 系列이 展開된 것과 같은 현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② 따라서 九C後期の 石塔에서 前期와 對等한 石塔의 樣式은 예술의 발생순위에서 보면 오히려 당연한 것이며 前期石塔에서 中代石塔과 同等한 樣式을 볼 수 있음도

〈表-2〉

9世紀後期石塔樣式表

石塔名	基壇部				塔身部					相輪部	時代	高	所在地	備考
	下層基壇		上層基壇		塔身石	屋蓋石								
	撐柱	上層中石 받침	撐柱	副椽		初層塔身 받침	屋蓋받침	塔身피임	낙수 홈					
慶州孝峴里三層石塔	1	弧形2단	1	有	角形2단	양우주	4단	角形2단	無		9C 後期	4.1m	慶北 慶州	
長淵寺址東·西三層石塔	1	角形2단	1	有	角形2단	양우주	4단	角形2단	有	露盤	"	東塔 4.6m 西塔 4.8m	慶北 清道	東塔: 1984년 해체 보수 西塔: 1979년 해체 보수
桐華寺東·西三層石塔	1	弧形2단	1	有	角形2단	양우주	4단	角形2단	東塔有西塔無	東塔: 露盤, 覆鉢, 仰花, 寶珠 西塔: 露盤	"	東塔 5.6m 西塔 5.2m	大邱市	東塔: 2층기단 중석까지 보수 西塔: 초층탑신에서 99塔과 사리장치
靑巖寺修道庵西三層石塔	1	角形1단	無	無	角形2단	양우주 양우좌상 어래구	5단	角形1단	有	露盤, 寶輪, 寶珠	"	4.2m	慶北 金陵	
寧國寺三層石塔	無	弧形2단	無	有	角形2단	양우주 양우면 1門扉	4단	角形1단	無	仰花, 寶輪, 寶蓋, 水煙은 별도 보관	"	3.2m	忠北 永同	1942년 이전, 하층기단 각면에 眼象 3구씩, 상층기단 각면에 眼象 1구씩
禪林院址三層石塔	1	弧形2단	1	有	角形2단	양우주	5단	角形2단	無	露盤	"	5m	江原 襄陽	상층기단에 八部神衆
金苞寺址三層石塔	1	弧形2단	1	有	角形2단	양우주 양우살상 보살상2면	5단	角形1단	無		"	3.9m	全南 寶城	상층기단에 八部神衆, 1979년 복원
實相寺東·西三層石塔	1	弧形2단	1	有	弧形2단	양우주	4단	角形2단	無	完全	"	8.4m	全北 南原	
陳田寺址三層石塔	1	弧形2단	1	有	弧形2단	양우주 양우방 4주佛	5단	角形2단	有	露盤	"	5m	江原 襄陽	하층기단에 飛天像, 상층기단에 八部神衆, 초층탑신에 사리공, 1986년 해체 보수
永川華南洞三層石塔	1	弧形2단	1	有	弧形2단	양우주	4단	角形1단	有		"	2.7m	慶北 永川	주변의 또다른 塔材로 보아 雙塔으로 추정됨
永川新月洞三層石塔	1	弧形2단	1	有	弧形2단	양우주 양우초 4층탑신 4면門扉	4단	1층2단 2,3층1단	無		"	4.6m	慶北 永川	상층기단에 八部神衆
醴泉東本洞三層石塔	1	角形1단	無	有	弧形2단	양우주	1,2층5단 3층4단	角形1단	無	露盤	"	3.1m	慶北 醴泉	상층기단에 四天王像 1구씩

石塔名	基壇部						塔身部			相輪部	時代	高	所在地	備考		
	下層基壇			上層基壇			塔身石	屋蓋石								
	撐柱	上層中石	石	撐柱	副椽	初層塔身		屋蓋반침	塔身외임						나수홈	
義城觀德洞三層石塔	1	弧角形	단	1	有	弧角形	단	양우주	1,2층4단 3층3단	角形2단	有	露盤	9C後期	3.7m	慶北 義城	하층기단에 비천상 상층기단 각면에 보살상, 사천왕상 각 1구씩
月光寺址東三層石塔	1	弧角形	단	1	有	弧角形	단	양우주	5단	角形2단	無	露盤	"	5.5m	慶南 陝川	
奉化西洞里東·西三層石塔	1	弧角形	단	1	有	弧角形	단	양우주	4단	角形2단	有	露盤	"	3.9m	慶北 奉化	東塔: 초층탑신에 사리장 치, 99탑 西塔: 3층탑신에 사리공
寶林寺南·北三層石塔	2			1	有	弧角形	단	양우주	5단	角形2단	有	完全	咸通11年 (景文王 10 年·870年)	5.4m	全南 長興	1934년 보수시 초층탑신에 서 사리장치, 탑지석
丹陽香山里三層石塔	1	弧角形	단	1	有	弧角形	단	양우주 남면 예扉	4단	角形2단	無	露盤, 覆鉢 仰花, 水煙	9C後期	4m	忠北 丹陽	
奉化鷲棲寺三層石塔	1	弧角形	단	1	有	角弧角	단	양우주	4단	角形2단	有	露盤	咸通8年 (景文王 7 年·867年)	現存 2.8m	慶北 奉化	최하층기단 각면에 眼象 4 구씩, 3층기단, 사리함에 명문
襄陽五色里三層石塔	1	弧角形	단	1	有	角弧角	단	양우주	4단	角形2단	無		9C後期	2.5m	江原 襄陽	
浮石寺東方寺址三層石塔	1	角弧角	단	1	有	角弧角	단	양우주	4단	角形2단	有	露盤	"	3.9m	慶北 榮豐	1958년 이전
仙巖寺東·西三層石塔	1	角弧角	단	1	有	角弧角	단	양우주	4단	弧角形	無	露盤	"	4.7m	全南 昇州	
桐華寺昆盧庵三層石塔	1	별형 석반침	바	1	有	별형 석반침	태	양우주	4단	角形2단	有	露盤, 覆鉢, 寶珠	咸通4年 (景文王 3 年·863年)	3.7m	大邱市	초층탑신에서 舍利盒 小土塔 3, 紅色絹布
到彼岸寺三層石塔						별형 석반침	태	양우주	1층4단 2,3층3단 半圓型	角形1단	有	露盤	咸通6年 (景文王 5 年·865年)	4.1m	江原 鐵原	하층기단 각면 眼象 1구씩 基壇部가八角佛座形
聖住寺址五層石塔	1	角弧角	단	1	有	角弧角	단	양우주	4단	角形1단	無	露盤	847년 추정	6.4m	忠南 保寧	1971년에 해체 복원 1층탑신에 사리공

石塔名	基壇部						塔身部					相輪部	時代	高	所在地	備考			
	下層基壇			上層基壇			塔身石	屋蓋石											
	撐柱	上層中石	副椽	初層塔身	副椽	副椽		屋蓋받침	塔身괴임	낙수홈									
聖住寺址中央三層石塔	1	角形	弧3단	1	有	角形	弧	角에	양	우	주	4단	角形2단	有	露盤(西塔에서이전)	847년, 추정	4.1m	忠南 保寧	1971년에 해체 복원 1층탑신에 사리공
聖住寺址西三層石塔	1	角形	弧3단	1	有	角形	弧	角에	양	우	주	4단	角形2단	有	露盤	"	4.4m	忠南 保寧	1971년에 해체 복원 1층탑신에 사리공
聖住寺址東三層石塔	1	角形	弧3단	1	有	角形	弧	角에	양	우	주	4단	角形2단	無		"	3.8m	忠南 保寧	1971년에 해체 복원 1층탑신에 사리공
鳳巖寺三層石塔	.	.	.	1	有	弧2	角	形	양	우	주	1,2층5단 3층4단	角形1단	有	完形	881년, 추정	6.3m 上輪高2.4m	慶北 聞慶	단층기단
尙州化達里三層石塔	.	.	.	1	有	角形1단	.	.	양	우	주	1,2층5단 3층4단	角形1단	無	.	9C 後期	6.3m	慶北 尙州	단층기단
聞慶內化里三層石塔	.	.	.	1	有	.	.	.	양	우	주	4단	弧2 角形단	有	露盤이 3층 우개석과 同 一石	"	4.3m	慶北 聞慶	단층기단, 1960년 再建 초층탑신에 사리공
直指寺大雄殿앞東·西三層石塔	.	.	.	1	有	角形2단	.	.	양	우	주	1,2층5단 3층4단	角形2단	無	.	"	5.3m	原) 慶北聞慶郡書中面熊創部落寺(直指寺)	단층기단, 1974년 이전
直指寺昆盧殿앞三層石塔	.	.	.	1	有	角形2단	.	.	양	우	주	1,2층5단 3층4단	角形2단	無	.	"	5.3m	原) 慶北聞慶郡書中面熊創部落寺(直指寺)	단층기단, 1974년 이전
靑巖寺修道庵東三層石塔	無	弧2	角	形	양	우	주	4단	無	有	露盤, 覆鉢, 寶輪	"	3.8m	慶北 金陵	단층기단
華巖寺東五層石塔	有	角形1단	.	.	양	우	주	4단	角形2단	無	露盤, 覆鉢	"	6.4m	全南 求禮	단층기단
表忠寺三層石塔	.	.	.	1	有	角形2단	.	.	양	우	주	4단	角形2단	無	露盤, 覆鉢, 仰花, 寶輪, 寶蓋, 水煙	"	7.7m	慶南 密陽	단층기단
牛川里三層石塔	.	.	.	1	有	弧2	角	形	양	우	주	4단	角形2단	無	.	"	4.5m	全南 寶城	단층기단

같은 연유에서이다.

이같은 基壇의 公式化와 함께 初層塔身에서는 前期의 角形 二단과
임내로부터 弧·角形의 二단 받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계열의 石塔으
로는 實相寺東·西三層石塔、永川華南洞三層石塔、永川新月洞三層石塔、
醴泉東本洞三層石塔、義城觀德洞三層石塔、月光寺址東三層石塔、奉化西
洞里東·西三層石塔、寶林寺南·北三層石塔、丹陽香山里三層石塔을 들
수 있다.

이중 實相寺東·西三層石塔은(圖 二四) 相輪部가 完全하여 주목을 받
고 있는데 實相寺의 初創은 新羅 興德王 三年(八二八) 洪陟國師의 創建
으로 전하고 있어 이塔의 建立도 寺刹 創建當時로 보고 있으나 細部
樣式을 살펴볼 때 屋蓋石은 轉角의 反轉이 날카롭고 隅陳線은 물결형을
이루고 있으며 各一枚로 造成된 上·下甲石에 合角線이 뚜렷하고 初層
塔身이 높은 점으로 보아 九C後期の 作品으로 생각된다.

寶林寺三層石塔은(圖 二五、二六) 一九三四年 해체 복원시 初層塔身
에서 舍利藏殿具와 함께 塔誌石이 발견되어 建立年代 및 重修事實이 확
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㉔

- 一、咸通十一年(景文王 一〇年·八七〇)에 建立
 - 二、大順二年(眞聖王 五年·八九一) 舍利七枚奉安
 - 三、成化十四年(朝鮮 成宗 九年·一四七八) 一次重修
 - 四、嘉靖十四年(朝鮮 中宗 三〇年·一五三五) 二次重修
 - 五、崇禎紀元後五十七年(朝鮮 肅宗 一〇年·一六八四) 三次重修
- 또한 이와 같은 建塔에서부터 四차례에 걸친 重修事實 이외에 景文王
一〇년에 憲安王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建立한 願塔임이 확인되었다. ㉕
又玄先生은 兩塔에 대해 二層、三層塔身에 있어서 隅柱形式이 갑자기
纖弱하게 된 곳、屋蓋曲線이 매우 微弱한點、下層基壇甲石에 있어서
上壇身部받침의 造出에서 蛇腹形이 消失하여 버린點等 後世의 改修의
結果인가도 생각된다. 或은 大體의 樣式及 尺寸만 古法을 따라서 改造
인가도 생각한다. ㉖라고 하여 兩塔의 改造事實을 지적하고 있는데 兩塔

誌石의 內容을 비교해 볼때 成化十四年과 嘉靖十四年의 改修記錄이 주
목된다. 즉 大順二年과 崇禎紀元後五十七年의 記錄은 南塔誌에만 記錄
되고 있어 南·北石塔은 兩基가 同時에 重修된 成化、嘉靖年間의 重修
時에 改造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成化十四年의 重修는 北塔의 기
울어진 狀態를 보수할 때 함께 改修된 것으로 추측되어 兩塔은 嘉靖十
四年(一五三五)의 重修時에 變造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出土된 靑銅盒의 銘文을 볼 때 「::立塔의 ㉗ 구절이 동시에
보이고 있어 成化十四年의 改修이후 塔이 기울어졌거나 도괴되어 다시
重修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모든 改修記事가 塔誌石에 기록되고 있음에
비해 嘉靖十四年의 重修事實은 靑銅盒에 기록되고 있어 特別한 사실이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이 塔은 初層塔身받침이 弧角形 二단인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前期石塔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下層基壇의 甲石에 通式의
上層基壇받침이 省略된 점으로 보아 嘉靖十四年의 重修時 下層基壇을
改造한 것으로 보인다.

兩塔의 屋蓋石은 넓고 추녀 밑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落水面 轉角의
反轉은 강한 편으로 下代石塔의 樣式을 잘 보여주고 있다.

初層塔身받침의 弧角形 二단 변화에 이어 角弧角形 三단의 변화가 보
이고 있는데 이 계열의 石塔으로는 奉化鷲棲寺三層石塔、浮石寺東方寺址
三層石塔、襄陽五色里三層石塔、仙巖寺東·西三層石塔이 있다. 이중 奉
化鷲棲寺三層石塔은(圖 二七、二八) 塔內에서 발견된 舍利盒의 銘文에
의하여 景文王七年(八六七)에 伊滄 金亮宗의 女明端의 發願에 의해 建
立된 石塔으로 밝혀졌다. ㉘ 이 塔은 一九六六年 二月에 실시된 新羅五
岳太白山地區 二次調査時에 調査됨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에는 塔材가 땅속에 묻혀 현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㉙ 최근 필자가 조
사한 바에 의하면 八枚의 長臺石으로 地臺石을 삼아 三層基壇을 構成하
고 있는데 下層基壇은 四枚의 장대석으로 下面에 角形 三단의 받침위에
각면 四軀척의 眼象이 배치되고 있다. 中層基壇은 甲石下面에 얇은 副

椽이 있으며 上面에는 弧角形 二단의 받침위에 二枚로 구성된 別石의 上層基壇 甲石이 있는바 上面에 弧角形 二단의 받침이 있으며 四隅에는 合角線이 뚜렷하다. 四枚로 구성된 上層基壇은 各面에 兩隅柱와 一撐柱가 模刻되어 있으며 甲石下面에는 副椽이 上面에는 角弧角形 三단의 받침이 있다.

塔身과 屋蓋石은 各一石씩인데 塔身에는 兩隅柱가 模刻되어 있으며 初層塔身의 높이가 五五cm인데 반하여 一層屋蓋石위 塔身石의 높이가 一六cm여서 이는 三層塔身으로 추정된다. 屋蓋石은 四단의 받침이 彫出되어 있으며 下面에는 落水홈이 上面에는 角形 二단의 塔身과 副椽이 있고 四隅에는 風磬孔이 있다. 落水面의 경사가 급하고 四隅의 反轉이 예리한 점은 下代石塔의 特徵을 잘 보여주고 있다. 塔頂에는 副椽이 있는 露盤石이 올려져 있다. 이 塔에서의 特徵은 基壇部에 있는바 三層基壇이 出現하고 있는데 현재의 狀態가 學術的인 復原이 아니라서 三層基壇의 確實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下層基壇石材에 角形 三단의 받침과 眼象이 彫飾되어 있으며 石材의 形態로 보아 다른 基壇의 部材라기보다 塔材의 性格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 따라서 鷲棲寺 三層石塔의 基壇樣式은 高麗時代에 建立된 燕谷寺 三層石塔 三層基壇의 先例로 볼 수 있다.

初層塔身 받침에서의 또 다른 변화는 別石 받침 形態의 改變수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八二八年에 建立된 法光寺址 三層石塔에서 이미 출현하고 있으며 후기의 石塔中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到彼岸寺 三層石塔에서 볼 수 있다.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은 塔內에서 출토된 舍利石盒의 銘文에 의하여 景文王 三年(八六三)에 敏哀大王을 위해 建立된 願塔임이 밝혀졌다. ②(圖 二九) 이 塔은 基壇으로 부터 塔身에 이르기까지 通式을 보이고 있지만 初層塔身 받침에서 변화가 보이고 있다. 즉 甲石 上面에 形의 받침이 彫出되어 있어 特異한 樣式을 보이고 있다.

到彼岸寺 三層石塔은(圖 三〇、三一、三二) 法堂內에 安置된 鐵造 毘盧

舍那佛 光背에 있는 銘文에 의하여 景文王 五年(八六五)에 地方豪族의 發願에 의해 建立된 石塔으로 보여지는데 ③ 基壇部가 八角形으로서 上·中·下臺石을 구비하고 있으며 上·下臺石에는 各各 仰蓮과 伏蓮을 彫飾하고 있어 佛座와 同一한 樣式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八角形 基壇은 高麗時代에 이르러 平安道地方을 中心으로 유행되는 八角形 石塔 基壇의 始原樣式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初層塔身 받침이 毘盧庵 三層石塔과 마찬가지로 別石 받침의 形態를 이루고 있다. 屋蓋 받침은 一層은 四단 二·三層은 三단을 이루고 있으나 通式의 角形이 아니라 弧形인 점이 特異하다.

初層塔身 받침의 別石 받침 形態는 聖住寺址에 建立된 四基의 石塔에 이르러 一枚의 別石 받침으로 定型化되며 특히 角弧角形의 三단 받침위에 別石 받침이 놓여 있어 初層塔身 받침 樣式의 進展過程을 볼 수 있는바 良慧和尚無染이 八四七년에 聖住寺를 改創한 점으로 보아 建立下限을 改創당시로 볼 수 있어 ④ 別石 받침은 九C 中期에 完成된 것으로 보인다. ⑤

四基의 石塔은 崇巖山 聖住寺 事蹟記에 기록된 釋迦如來舍利塔、定光如來舍利塔、迦葉如來舍利塔、藥師如來舍利塔으로 ⑥ 대체로 공통된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上·下層 基壇에 있어 撐柱는 一柱씩이며 甲石 上面의 四隅에 合角線이 뚜렷하며 각각 角弧角形의 三단 받침이 있다. 둘째, 初層塔身과 副椽에 一枚의 別石 받침이 있다. 셋째, 初層塔身에는 五層石塔을 제외하고는 모두 前·後 兩面에 門扉形이 模刻되어 있으며 屋蓋石은 四隅에 이르러 反轉이 예리해지며 받침은 모두 四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四基의 石塔中 五層石塔은(圖 三三、三四)、金堂址 正面에 建立되어 中門 石塔、金堂이 一直線上에 놓인 것으로 三國時代 堂塔 伽藍配置의 古制를 踏襲한 伽藍配置上의 石塔으로 그것이 釋迦如來舍利塔이라고 聖住寺 事蹟記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佛塔이라는 데서 常例의 인 伽藍으로서의 塔婆임을 알 수 있으며 三基의 石塔은 定光如來、迦葉如來、藥師如來의 三尊像이 多層方塔形의 石塔으로 配置된 異樣特例를 보이고 있다. ⑦

聖住寺址의 石塔은 모두 初層塔身받침이 別石으로 조성되고 塔이 佛
로 代用되는 變化를 보이고 있어 下代石塔의 特性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예로 생각된다. 즉 下代에 이르러 石塔은 佛像과 同等的한 가치를 부여받
아 佛像을 대신하여 尊名을 지닌 塔으로 대치 建立된 결과로 보인다.

九C後期の 石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까지 通式인 上·下二
層基壇中 下層基壇이 완전히 省略된 單層基壇이 出現하고 있는 점이다.

이 계열에 속하는 塔은 鳳巖寺三層石塔、尙州化達里三層石塔、聞慶內
化里三層石塔、直指寺大雄殿前三層石塔、直指寺毘盧殿前三層石塔、靑岩
寺修道庵東三層石塔、華嚴寺東五層石塔、表忠寺三層石塔、寶城牛川里三
層石塔이 있다.

이들 石塔은 表—二에서 보다시피 이제까지의 樣式的인 統一性을 보
이던 石塔과는 달리 不均衡을 보이고 있다. 즉 鳳巖寺三層石塔에 있어
서는(圖三五、三六、三七) 單層基壇으로서의 변화 이외에도 屋蓋받침
이 一、二層은 五단인데 반하여 三層은 四단을 유지하고 있으며 屋蓋石
上面的 塔身과인도 角形 一단을 造出하고 있다. 華嚴寺東五層石塔은(圖
三八、三九) 基壇部에서 撐柱가 완전히 省略되고 屋蓋받침은 各 四단씩
造出되고 있어 高麗時代石塔의 樣式으로 移行되어가는 樣相을 볼 수
있다.

單層基壇을 보이는 石塔中 鳳巖寺三層石塔은 憲康王七年(八八一)에
왕이 僧統 後恭과 肅正史 裴律文을 보내 寺域을 정하고 寺名을 鳳巖이
라 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⁵⁵⁾ 이 塔은 늦어도 八八一年 즉 九C後期에
建立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單層基壇을 지닌 石塔의 出現연대
추정에 큰 시사를 주고 있으며 內化里三層石塔、尙州化達里三層石塔、直
指寺三層石塔⁵⁶⁾ 등은 聞慶을 中心으로 분포되고 있어 九C 單層基壇의
石塔은 尙州 聞慶地方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⁵⁷⁾ 新羅盛代의 石
塔이 거의 慶州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九C에 이르러 등장한
地方樣式的 한 부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⁸⁾

이상에서 九C後期에 建立된 四四기의 石塔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後期の 石塔은 대체로 前期石塔의 樣式을 계승하면서 九C 石塔의 양식
적 特徵을 確立시킨 시기이며 高麗時代의 石塔으로 移行되어 가는 時期
로 보여진다. 九C後期 石塔에 나타난 前期石塔으로부터의 변화는

一、下層基壇에 있어 撐柱의 수는 一개로 定型化되고 있으며 鳳巖寺
三層石塔에서 보듯이 下層基壇 全體가 消滅된 單層基壇이 나타나 高麗
時代 石塔의 特徵을 보이고 있다.

二、上層基壇 역시 一撐柱를 표현하고 있어 後期の 石塔은 下 一、上
一의 撐柱가 基壇部의 公式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의 基壇은 八二八
년에 建立된 法光寺址三層石塔에서 最初로 발생되어 九C後期에 이르러
定立된 基壇形式으로 보인다.

三、九C後期の 石塔에서 가장 큰 변화는 初層塔身받침에서 보이고
있는데 前期의 石塔이 모두 角形 二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後期石塔
에서는 角形 二단↓弧角形 二단↓角弧角形 三단↓別石받침形態↓別石받
침으로 變化를 보이고 있다. 角形 二단의 받침은 中代石塔으로부터의 공
통된 양식이며 弧角形 二단은 九C後期初半에 建立된 實相寺三層石塔에
서 角弧角形 三단은 八六七년에 建立된 奉化鷲棲寺三層石塔에서 先例를
볼 수 있다. 別石받침形式은 八二八年에 建立된 法光寺址三層石塔에서
의 造成을 시작으로 桐華寺毘盧庵三層石塔、到彼岸寺三層石塔으로 이어
지고 있으며 三基의 石塔이 모두 願塔인 점도 이와 같은 양식이 시사하
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別石받침은 聖住寺址에 建立되어 있는 四基의
石塔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高麗時代 石塔에 나타나는 別石받침의 定型
화된 先例로 九C後期에 이르러 이미 高麗後代 石塔의 樣式이 出現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四、初層塔身받침의 變化에 따라 九C後期の 石塔은 前期에 이어 初
層塔身이 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九C 石塔의 內的變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五、前期에 이어 마찬가지로 基壇 및 塔身部에 莊嚴이 가해지고 있는
데 下層基壇에는 眼象、飛天像이 上層基壇에는 八部神衆、眼象、四天

王, 菩薩이 初層塔身에는 四方佛, 門扉形, 菩薩이 주요 莊嚴으로 彫飾되고 있다.

六、前期의 石塔은 慶尙道地方을 中心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後期에 이르러 全國의 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石塔의 전국적인 확산은 下代의 時代狀況에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七、前期에 이어 願塔이 유행하고 있다. 즉 寶林寺三層石塔, 奉化驚棲寺三層石塔, 桐華寺昆盧庵三層石塔, 到彼岸寺三層石塔은 모두 景文王代에 建立된 絕對年代가 있는 石塔으로 九C 後期에 國王, 貴族, 豪族에 의한 願塔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九C에 建立된 六九基의 石塔에 대해 樣式的인 문제에 限하여 考察하였다. 九C에 建立된 이 많은 石塔이 모두 寺刹의 裝飾物 내지는 工藝的인 塔이 될 수 없음을 명백한 사실로 생각된다. 石塔에서의 細部的인 變化, 裝嚴彫飾의 盛行은 九C 石塔의 대표적인 特徵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變化하고 彫飾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을 것이며 이는 下代의 時代狀況 가운데서 규명해야 할 것이다.

三、中代石塔과의 比較

우리나라 最初의 石塔 發生國인 百濟는 中國의 木塔樣式을 忠實히 石材로 옮겨 彌勒寺址石塔과 定林寺址五層石塔을 建立하였으며 新羅는 木塔과 博塔의 양식을 忠實히 倣하여 善德王三年(六三四)에 芬皇寺模博石塔을 造成하면서 우리나라 塔婆史의 一章을 열었다. 즉 한반도에 建立된 수많은 石塔의 根源은 木塔과 博塔에 있으며 한국 石塔의 典型樣式을 創出した 新羅는 木塔 博塔의 양식을 잘 소화 정리하여 七C 전반기에 이르러 義城塔里五層石塔을 建立하게 되었다.② 이 와 같은 類의 石塔은 모두 韓國石塔의 始原樣式으로서 統一後 形成된 典型石塔의 祖形이 되고 있다. 新羅의 三國統一은 政治社會的인 統一뿐 아니라 文化와 藝術까지도 포함하는 전체적인 統一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라는

독자적인 石塔文化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統一後 新羅에 의해 建立된 石塔은 感恩寺址東·西三層石塔, 高仙寺址三層石塔, 羅原里五層石塔으로 이를 通稱하여 典型的 塔婆라 하는바 朝鮮塔婆史上 第二期를 形成하며 世代的으로 文聖王부터 聖德王까지의 中代前期에 두어질 수 있다.③ 感恩寺址三層石塔(圖四〇)으로 대표되는 典型期의 石塔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양식상의 공통적인 特徵을 보이고 있다.

一、基壇은 上·下二層基壇으로 下層基壇에는 三柱의 撐柱와 兩隅柱가 各各 別石으로 組立되고 있으며 甲石 下面에는 角形 一단의 副椽이 있고 上面에는 角形 二단의 初層塔身받침이 造出되어 있다.

二、塔身石은 兩隅柱가 別石이며 一枚板石으로 四壁을 이루고 있다. 三、八枚로 구성된 屋蓋石은 完만한 落水面을 보이고 있으며 上面에 角形 二단의 塔身받침이 下面에 角形 五단의 屋蓋받침이 造出되어 있다.

四、대부분의 石塔은 露盤 이외에는 相輪部를 결실했으며 感恩寺址東·西三層石塔은 鐵製擦柱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이 공통된 양식을 公式으로 갖는 典型石塔에 있어서 中代後期에 이르러 定型樣式의 石塔이 登場하고 있는데 又玄先生은 이를 第三期의 作品으로 分類한 후 造成時代를 中代後期(孝成王·惠恭王)으로 설정하고 있다.④ 이 계열의 石塔으로는 獐項里五層石塔, 佛國寺三層石塔, 長壽寺址三層石塔, 千軍里東·西三層石塔, 明莊里三層石塔, 葛項寺址三層石塔, 淸道鳳岐洞三層石塔을 들 수 있는데⑤ 대체로 佛國寺三層石塔(圖四一)의 樣式을 母形으로 建立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볼 수 있다.

一、基壇은 上·下二層基壇을 구비하고 있으며 各層의 撐柱는 各二柱씩이다. 下層基壇 甲石 上面에는 弧角形 二단이, 上層基壇 甲石 上面에는 角形 二단의 副椽이 造出되어 있다.

二、塔身과 屋蓋石은 各二石씩이며 塔身에는 兩隅柱가 模刻되고 屋蓋石 下面에는 角形 五단의 받침이 上面에는 角形 二단의 塔身받침대가 造出되어 있다.

〈表-3〉

新羅石塔樣式比較表

※ ()는 彫飾된 石塔數

時期		7C後期~8C前期(典型期)	8C後期(定型期)	9C前期	9C後期	
石塔細部名稱						
下層 基壇	撐柱	3 (別石)	2	2	1	單八角佛座基壇
	副椽	角形	角形	角形	角形	
	上層中石 받침	弧角形 2 단	弧角形 2 단	弧角形 2 단	弧角形 2 단, 角弧角形 3 단	
	莊嚴彫飾			十二支(1), 眼象(3)	眼象(2), 飛天(2)	
上層 基壇	撐柱	2 (別石)	2	1	1	
	副椽	角形	角形	角形	角形	
	初層塔身 받침	角形 2 단	角形 2 단	角形 2 단	角形 2 단, 弧角形 2 단 角弧角形 3 단, 별석 받침	
	莊嚴彫飾		十二支(1)	眼象(4), 八部神衆(5)	四天王(3), 八部神衆(4), 菩薩(1)	
塔身	塔身石	양우주 (別石)	양우주	양우주	양우주	
	莊嚴彫飾	門扉形(1), 龕室(1)	門扉形(2), 四天王(1), 仁王(1)	仁王(1), 菩薩(1), 門扉形(1)	門扉形(7), 四方佛(2), 四天王(2), 菩薩(1)	
屋蓋	塔身 받침	角形 2 단	角形 2 단	角形 2 단	角形 1 ~ 2 단	
	屋蓋 받침	5 단	5 단	5 단	4 ~ 5 단	
	屋蓋石	感恩寺址三層石塔(682年) “感恩寺”에서轉載	佛國寺三層石塔 “韓國의 古建築”에서轉載	昌林寺址三層石塔(855年) “慶州南山의 佛蹟”에서轉載	寶林寺三層石塔(870年) “國寶 6”에서轉載	

三、相輪은 대부분이 결실되었지만 副椽이 있는 一石으로 된 露盤이 있다.

이와 같은 樣式的 特性 이외에 塔表面에 莊嚴이 가해지고 있는바 이는 月城獐項里五層石塔、遠願寺址三層石塔에서 볼 수 있다. 獐項里五層石塔은 初層塔身에 門扉形이 模刻되어 있으며 左·右에 仁王像이 蓮花座 위에 彫刻되어 있다. 遠願寺址三層石塔은 初層塔身에 四天王을 彫飾하고 上層基壇 各面에는 蓮花座 위에 十二支像을 彫飾하고 있다. 定型期的 石塔에 彫飾된 諸像은 後代石塔에서도 彫飾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二基의 石塔에 局限되고 있어 定型期的 石塔에서는 表面莊嚴이 완전히 수행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石塔自體의 表面에 대한 직접적인 彫飾 이외에 特別한 장식물을 첨가하여 莊嚴한 石塔으로 金泉葛項寺址三層石塔을 들 수 있다(圖 四二). 이 塔은 金陸郡 南面 梧鳳里에서 一九一六年에 移建된 石塔으로 앞에서 살펴본 定型期的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塔은 塔身全體에 釘穴이 있어 裝飾이 있는 金銅板으로서 덮였던 것임을 보여주며 특히 初層塔身 面石의 凹凸 흔적은 四天王立像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東塔의 上層基壇銘文에 의하여 興德王 一七年(七五八)에 建立된 絕對年代가 있는 石塔으로 表面莊嚴의 特異한 例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定型期的의 石塔에서 발생된 樣式은 定型期에 이르러 韓國石塔의 樣式的인 確立을 보아 後代에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典型·定型期的의 石塔과 九C 石塔과의 細部樣式을 비교해 보면 앞의 表一三으로 집약되고 있다.

表一三에서 보듯이 定型期에 와서 定立된 石塔의 諸樣式은 九C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九C後期에 이르러서는 前期에 비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九C 石塔의 特徵은 後期에 이르러 確立되었다고 볼 수 있다. 九C 石塔의 變化中 基壇部의 변화와 더불어 表面莊嚴 彫飾의 증가, 初層塔身 받침대의 變化는 九C 石塔의 外形的

인 變化 이외에 內的인 變化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즉 下代라는 時代에 부응하기 위한 彫飾 및 變化로서 建塔의 目的 및 崇拜 物로서의 變化를 살필 수 있다고 생각된다. 九C에 이르러 定立된 諸樣式은 高麗時代의 石塔으로 移行되어 高麗時代에 建立된 많은 石塔의 祖形이 되고 있다. 따라서 九C의 美術은 적어도 石塔의 경우에는 양식적 쇠퇴기가 아니라 前代의 樣式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樣式을 創出시켜 後代로 이어준 文化的 胎動期 내지는 轉換期로 보아야 할 것이다.

四、結 論

이상에서 九C에 建立된 六九기의 石塔에 대하여 樣式的인 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八C가 新羅石塔의 樣式定立期였음에 비해 九C는 基壇部 및 初層塔身部에서의 變化와 함께 많은 莊嚴彫飾이 등장한 시기로 이상의 많은 變化는 前期에 비해 後期에 이르러 나타나고 또 九C 石塔의 樣式으로 定立되었다.

九C 石塔에 나타난 樣式을 정리해보면,

一、基壇部에서는 中代石塔의 基壇撐柱가 下二、上二柱였으나 九C前期는 下二、上一柱로 後期는 上·下各一柱로 公式化되고 있다. 또 중래의 二층기단으로부터 單層基壇、佛座形基壇이 나타나고 있는데 單層基壇은 鳳嚴寺三層石塔의 建立이 八八一年으로 추정됨으로 九C後期에 開慶、尙州地方을 中心으로 발생한 地方樣式으로 보았으며 佛座形基壇은 倒彼岸寺三層石塔의 建立年인 八六五年 즉 九C後半에 이르러 完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高麗時代 石塔基壇의 先例가 九C에 完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二、塔身部에서의 變化는 初層塔身과 임대에서 보이고 있는데 중래의 角形 二단 받침에서 弧角形 二단、角角形 三단、別石받침형태、別石 받침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別石받침 형태는 八二八年에 建立된 法光寺址

三層石塔에서 最初로 보이고 있으며 別石받침은 聖住寺址에 建立된 四기의 石塔이 八四七年作으로 추정됨에 따라 九C중기에 完成된 것으로 보이는데 初層塔身과 二層의 變化는 初層塔身에 안치된 舍利를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 또 屋蓋石에 있어서는 받침이 통식의 五단으로부터 四단으로 변하고 있으며 轉角의 反轉이 예리하여 外형적으로 날씬하고 경쾌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屋蓋石 下面에는 나수홈이 있다.

三、九C의 石塔은 表面에 많은 莊嚴彫飾이 表現되고 있는데 九C前期에는 眼象이 집중적으로 彫飾되고 있으며 後期에 이르러 四天王、門扉形、四方佛의 彫飾이 盛行하고 있다. 九C 石塔에 表現된 많은 莊嚴彫飾은 石塔의 工藝化를 위한 彫飾이 아니라 新羅下代라는 時代狀況을 통하여 볼 때 政治、社會的인 必要에 의하여 彫飾되어졌다고 생각된다.

四、石塔의 分布면에서 볼 때 中代의 石塔은 慶州를 中心으로 밀집되어 있으나 九C에 이르러 全國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前期는 慶尙道 및 全羅道地方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後期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建立되고 있다.

五、願塔의 建立이 유행하고 있는바 前期에 비해 後期의 建立이 많아지며 특히 後期에 建立된 願塔은 모두 景文王代에 建立되고 있어 이역시 下代의 시대동향 가운데서 파악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六、寶林寺南·北三層石塔은 嘉靖十四年(一五三五) 二次重修시 下層基壇이 번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나타난 제반 특징을 볼 때 九C는 中代石塔의 樣式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樣式을 創出한 시기이며 高麗時代 石塔의 典型樣式을 보인 시기였다. 따라서 九C는 적어도 石塔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의 쇠퇴기가 아니라 새로운 文化의 創出을 위한 ینگ태기로 보아야 하리라 믿는다.

〈註〉

- ① 崔炳憲, 「新羅下代 禪宗九山の 成立—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七, 韓國史學會, 一九七二, pp. 93~101.
- ② 黃壽永, 「우리나라의 塔」, 『思想界』四, 五月號, 思想界社, 一九六一.
- ③ 현재까지 刊行된 石塔에 관한 研究書로는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乙酉文化社, 단기 四二八二.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各論草稿』, 『考古美術資料』第一四輯, 韓國美術史學會, 一九六七.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同和出版社, 一九七五.
金禧庚, 「塔—韓國의 美術二」, 悅話堂, 一九八二.
鄭永鎬, 「石塔」, 『韓國의 美』九, 中央日報社, 一九八〇.
秦弘燮, 「塔婆」, 『國寶』六, 藝耕產業社, 一九八三.
黃壽永, 「佛塔과 佛像」, 세종대왕기념사업회, 一九七四.
黃壽永, 「石塔」, 『韓國美術全集』六, 同和出版社, 一九七四.
文化財管理局, 『國寶圖錄』, 石塔篇, 一九六一.
이 있으며 研究論文으로는
高裕燮, 「韓國塔婆의 樣式變遷」, 『東方學志』二, 延世大東方學研究所, 一九五五.
金瓊會, 「韓國石塔樣式과 그 變遷에 관한 系通의 研究」, 延世大學院 碩士學位論文, 一九六三.
鄭永鎬, 「韓國石塔의 特殊樣式考察」上·下, 『檀國大學校論文集』三, 四, 一九六九, 一九七〇.
鄭永鎬, 「高麗時代 石塔의 特性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論文集』一一, 一九七七.
韓正熙, 「韓國古代 雙塔의 研究」, 弘益大學院 碩士學位論文, 一九八一.
黃壽永, 「우리나라의 塔」, 『思想界』四, 五月號, 思想界社, 一九六一 등이 있다.
- ④ 九C의 石塔만을 다룬 論文은 全無한 실정이며 美術史 概說書中 塔에 관한 部分에 소개되고 있으며 最近에 『古考美術』一五八, 一五九合輯號에 실린 黃壽永先生의 「新羅의 典型石塔」에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 ⑤ 이와 같은 생각은 필자뿐 아니라 李殷基氏도 이미 밝힌바 있다.
李殷基, 「統一新羅藝術精神의 變遷—龜趺碑와 浮屠樣式을 中心으로」 『弘益大學院論巧』創刊號, 一九七四, pp. 13~24.
- ⑥ 新羅의 石塔은 八C後半경부터 初期石塔의 樣式으로부터 차츰 변화하기 시작하여 九C에 이르러 소위 下代石塔의 樣式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통칭

하여 九C 石塔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든 石塔은 九C 石塔이라 칭한다.

⑦ 현재 東五層石塔은 光州市 東區 芝山洞에 있으며 西五層石塔은 西區 龜洞에 위치하고 있어 建立位置로 보아 雙塔의 배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西塔은 高麗時代に 建立된 石塔으로 생각된다.

⑧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寶物篇 中, 一九六八, p. 374.
⑨ 中代石塔의 樣式的인 共通點이다음과 같다.

下層基壇	上層基壇	塔身部	相輪
兩隅柱, 二撐柱, 弧形二단의 上層中石반침	兩隅柱, 二撐柱, 甲石에 角形副椽角形二단의 初層塔身반침	塔身, 屋蓋石 各一石, 塔身에 兩隅柱, 屋蓋반침 各層五단, 角形二단의 塔身과인대	副椽 있는 露盤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乙酉文化社, 단기 四二八一, p. 93 참조.

⑩ 又玄先生은 八C 後半期 이후의 作品으로 보고 있다.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同和出版社, 一九七五, p. 212.

⑪ 이 塔은 노괴되어 있던 것을 一九七六년에 復元하였는라 노괴시의 현상 및 실측도면과 石塔記의 내용의 『慶州南山의 佛蹟』(朝鮮總督府, 昭和 一五年) 本文 pp. 15~18, 附圖 15~17에 상세히 실려 있다.

⑫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寶物篇 中, 一九六八, p. 481.

⑬ 文明大, 金東賢, 『新羅法光寺址第一次實測調査概要』, 『佛教美術』 一, 東國大學校博物館, 一九七三, p. 122.

이 外에 黃壽永先生은 寺域中心에서 堂塔이 배치되던 자리가 아니라 塔으로 高臺를 설정하여 建立된 것이 확실하다고 원위치를 주장하고 있다. 黃壽永, 『新羅法光寺址石塔記』, 『白山學報』 八, 一九七二, 『韓國의 佛教美術』, 同和出版社, 一九七四의 所收, pp. 188~199.

그러나 法光寺址三層石塔은 塔誌石의 銘文을 볼 때 원래는 다른 곳의 塔이 會昌六年(八四六)에 원위치로 移建했음을 알 수 있다. 이 塔의 원위치 문제는 寺域에 대한 全面發掘의 結果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⑭ 法光寺址三層石塔의 初層塔身의 高이가 五七cm인데 二層塔身의 高이는 二一cm로서 二·七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九C 石塔에서 이와 같이 初層塔身의 高이는 낮은 初層塔身과인대의 변화와 함께 初層塔身에 奉安된 舍利를 尊重한 結果로 보인다.

⑮ 出土된 塔誌石 二기의 內容이 다음과 같다.

法光寺石塔記「會昌六年丙寅九月移」建兼脩治願代檀越生「淨土今上福命

長遠」內舍利廿二枚 上座道興」大和二年戊申七月香」照師圓寂尼捨財建塔」寺檀越成德大王典香純」

第二石

法光寺石塔記「乾隆十二年丁」卯二月日重修」主事明王寅七月寺中生修」刻大言」

黃壽永, 『前掲論文 및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一九七六, pp. 145~147.

⑮ 鄭永鎬「香城寺址三層石塔」, 『史學研究』 二二, 金聲均教授華甲紀念論文集, 韓國史學會, 一九六九, p. 11.

⑯ 秦弘燮, 『統一新羅時代特殊樣式的 石塔』, 『考古美術』, 一五八, 一五九合輯, 韓國美術史學會, 一九八一, p. 20.

⑰ 高麗時代의 石塔中 차연암반을 基단으로 삼아 建立한 例는 安東幕谷洞三層石塔, 安東泥川洞三層石塔, 寧國寺望塔峰三層石塔, 洪川陽德院三層石塔, 靈巖月出山磨崖佛前方 龍岩寺址三層石塔이 있다.

⑱ 秦弘燮,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考古美術』 一三八, 一三九合輯, 韓國美術史學會, 一九七八, pp. 96~109.

秦弘燮,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補』, 『考古美術』 一四六, 一四七合輯, 韓國美術史學會, 一九八〇, pp. 25~30.

成春慶, 『靈岩地方의 佛教文化遺蹟』, 『靈岩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博物館, 一九八六, p. 203.

⑲ 秦弘燮, 『前掲論文』, p. 109.

⑳ 中代의 石塔中 國王의 發願에 의한 建塔은 神文王의 冥福을 받기 위하여 神

陸王后와 孝昭王의 發願으로 建立한 慶州 九皇里三層石塔이 있으며 王族의

의해 建立한 願塔은 零妙寺 言寂法師와 照文皇太后君姊와 敬信大王姊 三男

妹의 發願으로 七六三年에 建立된 葛項寺址三層石塔이 있다.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乙酉文化社, 단기 四二八一, p. 93.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一九七六, pp. 140~141.

㉑ 高裕燮, 『前掲書』, p. 90.

㉒ 知異山實相寺事蹟(上) 沿革條에 新羅興德王 三(년)唐文宗太和(二年) 戊甲의

開山祖師 洪陟國師의 初建하신 바로써……라 기록되어 있으며 佛像及貴重品

條에 庭中塔 一座 新羅興德王 三年 開山時에 建築한 바로서 李朝 高宗 八年

에 華岳聚斯大師가 重修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어 八二八년에 實相寺가 創

建되고 동시에 石塔이 康立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金映遂篇, 『知異山實相寺事蹟(上)』, 『考古美術』 一〇八, 韓國美術史學會,

一九七八, pp. 18~19.

㉓ 南·北石塔內에서 각각 一枚의 塔誌石과 青銅盒이 一점씩 조사되었는바 銘

文의 내용은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一九七六, pp. 153~156에 실

려 있으며 舍利具에 대한 내용은 鄭永鎬先生의 의하여 소개된바 있다.

鄭永鎬, 「寶林寺石塔內發見舍利具의 考査」, 『考古美術』 一三三, 一三四
合輯, 韓國美術史學會, 一九七四, pp. 26~34.

②4 北塔誌의 側面에 『造塔時』咸通十一年(庚寅五月日)時(凝王即位)十年矣「所由者」憲王(往生)慶造地塔……의 기록이 있어 景文王十年(八七〇)에 憲安王을 위해 建立된 願塔임을 알 수 있다.

②5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名論草稿」, 『考古美術資料』 第一四輯, 考古美術同人會, 一九六七, pp. 185~186.

②6 兩塔에서出土된 靑銅盒의 嘉靖十四年乙未五月日立塔施主俞○○○○化主義根(北塔) 및 嘉靖十四年乙未四月日立塔重修記化主義根(南塔)의 기록이 있다.

黃壽永, 前掲書, p. 156, p. 158.

②7 舍利盒 表面의 釋彦傳「母親諱明端」考伊浪金亮「宗公之季女」親自發弘誓專起佛塔已「感淨土之業」兼利穢國之「生孝順此志」建立茲塔在「佛舍利十粒」作牙垢淨「一置寶師皇龍」寺僧賢矩「大唐咸通八年建」과 底部에 『石匠神擘』의 銘文이 있다.

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陳烈品圖鑒』 八, 一九三六.

②8 조사당시 塔의 內한 기록을 보면 『현재는 二層塔身까지 올라 놓았으나 屋蓋石과 露盤等이 落下되어 雪中에 묻혀 있으며 基壇은 中央撐柱 하나가 突出되고 兩隅柱가 있는 通式의 基壇型인데 本래부터 單層基壇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下基壇이 破損되어 再建時에 上基壇 세웠는지 이것도 해명 후의 再調의 必要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鄭永鎬, 「奉化駕樓寺의 塔像과 石燈」, 『考古美術』 七一四, 考古美術同人會, 一九六六.

②9 桐華寺 靑瓦庵三層石塔記에 대해서 黃壽永先生의 상세한 論考가 있다. 黃壽永, 「新羅敏哀大王石塔記」桐華寺靑瓦庵三層石塔의 調査, 『史學志』 三, 檀國大學校史學會, 一九六九, pp. 53~86.

③0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一九八〇, p. 281, 到彼岸寺佛像造成銘文 참조.

③1 崇山山聖住寺事蹟記의 하면 『…唐宣宗大中元年丁卯冬十一月十一日 至烏合寺 其夜雪下半腰 假住數日 僧裕寂梵行志崇三人先居之 固請住止 文聖大王亦遣宰相魏斯泰所 請居因住錫焉……』라고 기록되어 있어 聖住寺의 前身이 百濟의 烏合寺였으며 大中元年(八四七)에 郎慧和尚無染이 이곳에와 住錫함으로써 聖住寺가 九山禪門의 하나로 開創된 것이므로 보인다.

考古美術同人會篇, 「崇巖山聖住寺事蹟」, 『考古美術』 九卷 九號.

③2 石塔에서 別石반침이 이미 九C前期의 石塔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慶州南山里東三層石塔에서는 角形 三단의 一매 板石이 初層塔身을 받치고 있으며 淨惠寺址三層石塔과 慶州西岳里三層石塔에서는 一매의 판석으로 初層

塔身을 받치고 있는바 이는 定形화된 塔身반침은 아니지만 初期의인 別石반침이로 볼 수 있다.

③3 考古美術同人會篇, 「崇巖山聖住寺事蹟」, 『考古美術』 九一九資料, 一九六八.

③4 李殷昌, 「保寧聖住寺址石塔考」, 『史學研究』 二二, 金聲均博士華甲紀念論文集, 韓國史學會, 一九六九, p. 45.

③5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 『中和辛丑年 敎遺前安輪寺僧統後恭肅正使裴律文定疆域仍賜勝爲鳳巖……』라고 기록되어 있다.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上, 大正八年, p. 94.

③6 直指寺의 石塔 三基는 모두 慶北 開慶郡 山北面 書中里 熊創部落으로부터 一九七四年에 移建된 것이다.

③7 秦弘燮, 「統一新羅時代 特殊樣式의 石塔」, 『考古美術』 一五八, 一五九合輯, 韓國美術史學會, 一九八三, p. 23.

③8 統一新羅時代에는 이미 地方的인 特色을 지닌 造形物이 등장하고 있다. 즉 江原道 原州地方의 諸遺物에 彫飾된 蓮華紋의 공통점이라는지 潭陽 開仙寺址石燈, 實相寺石燈, 任實龍岩里石燈, 華嚴寺覺皇殿石燈, 禪林院址石燈, 陝川 清涼寺石燈은 竿石이 鼓腹形인 特殊樣式인바 이중 四기가 全北 南原地方에 집중되고 있어 이 地方에서 특히 유행한 浮屠의 基壇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은 독특한 地方樣式을 지닌 一群의 石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9 黃壽永, 「우리나라의 塔」, 『韓國의 佛教美術』, 同和出版公社, 一九七四, p. 83.

④0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乙酉文化社, 단기 四二八一, p. 79.

④1 高裕燮, 前掲書, pp. 80~85.

④2 又玄先生은 同系列의 作品으로 慶州南山里三層石塔, 香城寺址三層石塔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南山里三層石塔과 香城寺址三層石塔은 양식으로 보아 九C前期의 作品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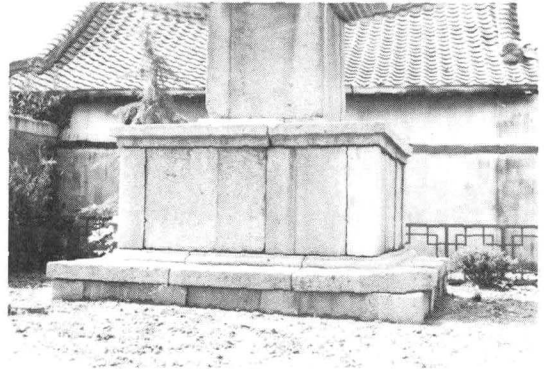
高裕燮, 前掲書, p. 81.

④3 高裕燮, 前掲書, p. 87.

④4 東塔의 上層基壇에 다음과 같은 銘文이 있어 天寶一七年(七五八)에 三男妹의 發願에 의한 願塔임을 알 수 있다. 二塔天寶一十七年戊戌中立在之 娚姊妹三人業以成在之 娚者 靈妙寺言寂法師在旆 娚者 昭文皇太后君旆在旆 娚者 敬信大王妹在也



圖 1) 光州東五層石塔



(圖 2) 同基壇部



圖 3) 同塔身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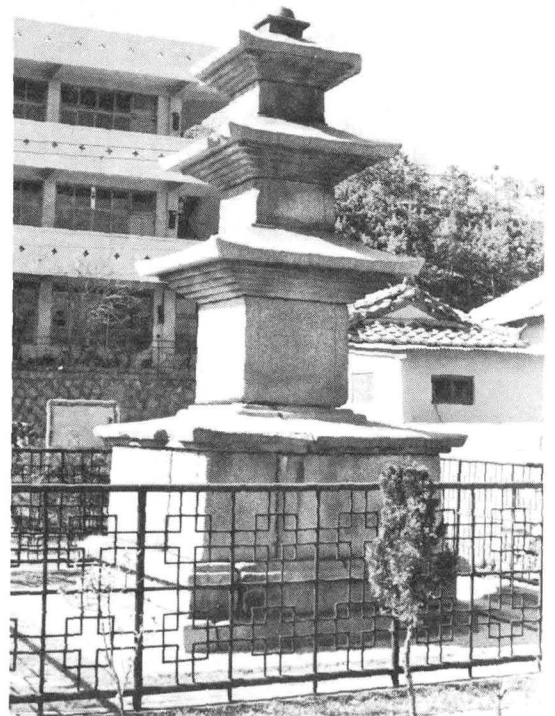


圖 4) 安東玉洞三層石塔



圖 5) 慶州南山里西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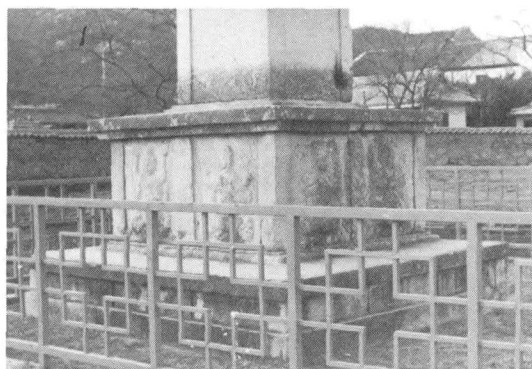


圖 6) 同基壇部



圖 7) 同塔身部



圖 8) 山清泛鶴里三層石塔



圖 9) 華嚴寺西五層石塔



圖 10) 大興寺 應真殿前三層石塔



圖 11) 慶州昌林寺址三層石塔



圖 12) 漆谷箕城洞三層石塔



圖13) 昌寧述亭里西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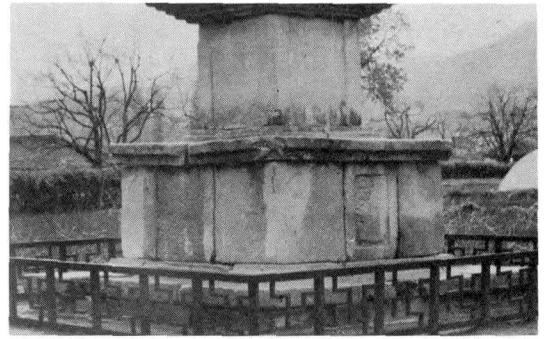


圖14) 同基壇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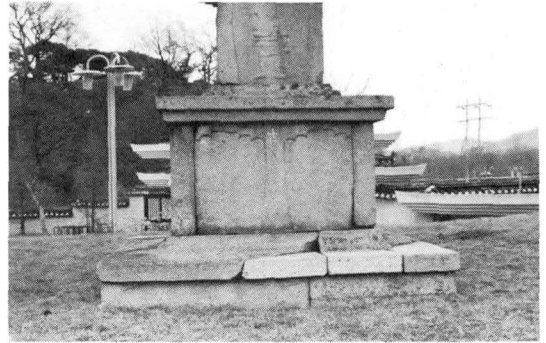


圖16) 同基壇部



圖15) 慶州南山僧燒谷三層石塔



圖17) 同塔身部



圖18) 法光寺址三層石塔



圖19) 同 基壇部



圖21) 同 3層屋蓋石



圖20) 同 初層塔身받침



圖22) 香成寺址三層石塔



圖23) 慶州南山茸長寺谷三層石塔



圖24) 實相寺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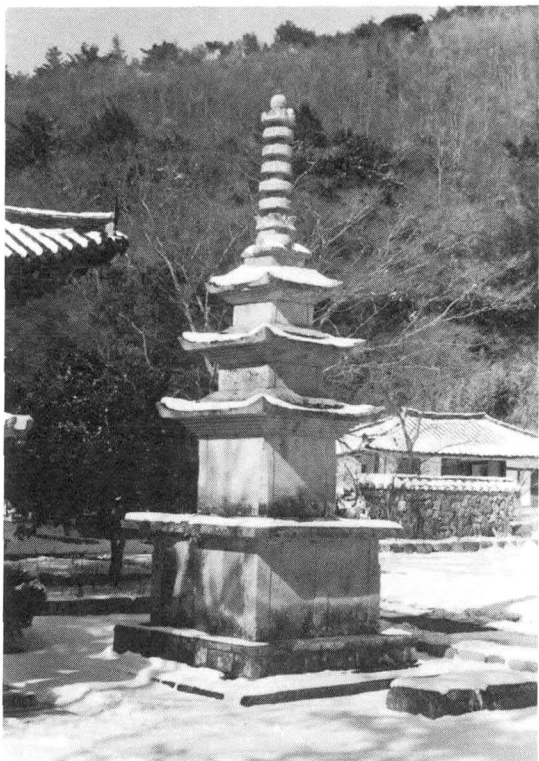


圖25) 宝林寺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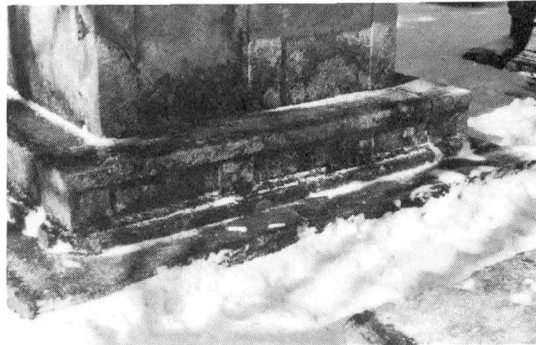


圖26) 同 基壇部



圖27) 奉化鷲棲寺三層石塔



圖28) 同 基壇部



圖29) 桐華寺毘盧庵三層石塔



圖30) 鐵原 到彼岸寺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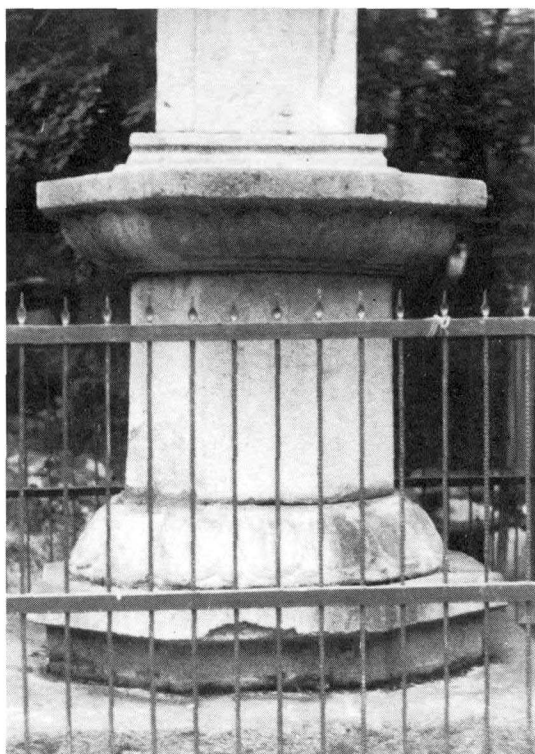


圖31) 同 基壇部



圖32) 同 塔身部



圖33) 聖住寺址五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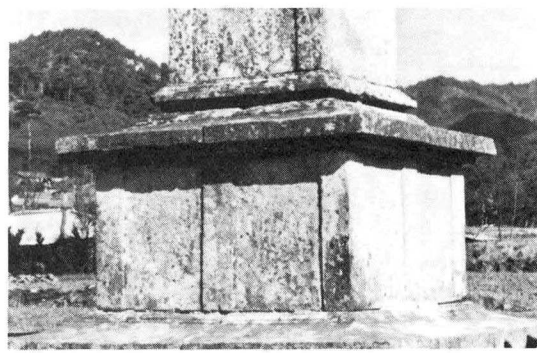


圖34) 同 初層塔身別石받침



圖35) 鳳巖寺三層石塔



圖36) 同 基壇部



圖37) 同 塔身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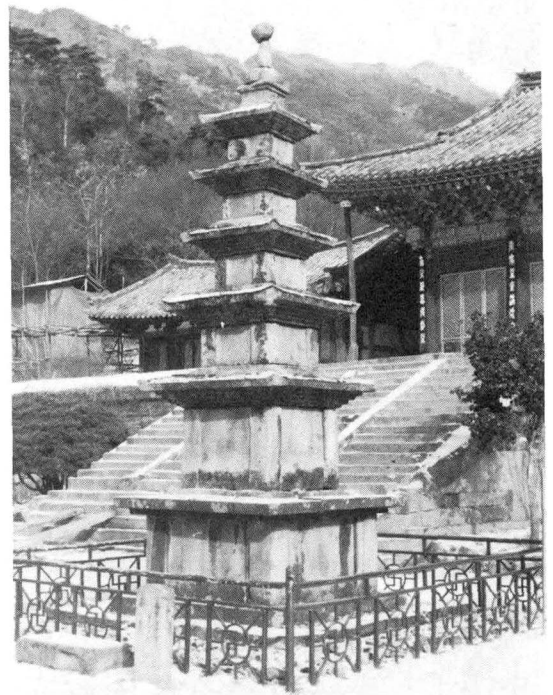


圖38) 華嚴寺東五層石塔



圖39) 同 基壇部



圖40) 感恩寺址三層石塔



圖41) 佛國寺三層石塔



圖42) 葛項寺址三層石塔